

“아파트 시세표와 대학입학 사정표”

김상우 / YTN 경제부 차장

최근의 집값 상승이유는 시세를 마치 수능시험 성적표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데 있다. 한국 언론 특유의 냄비근성은 보도를 '세계 더 세계' 서로 경쟁 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제가 증폭되는 악순환을 갖게 한다.

최근의 집값 상승을 보면 저는 저를 포함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시세를 마치 수능시험 성적표를 공개하듯 경쟁적으로 매주, 그것도 어떤 때는 관련 아파트 시세 기사를 거의 매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은 가격 덩치가 워낙 커서 이렇게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가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 보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는 모두가 진실인 것처럼 믿고 거래에 임하기 때문에 그 보도된 가격 이하로는 거래가 잘 안돼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좀 더 세계 | 관련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고 보도되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 이전에 기사화된 것을 다시 재탕, 삼탕 새로운 것인 양 쓰는게 많습니다. 한국 언론 특유의 '냄비근성' 상 주요 언론사가 보도를 '세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언론사는 이 보도 보다 '더 세계'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면 기자들이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싸움 결과를 쓰고 싸움이 싱거우니 다시 싸움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적 보도는 결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교적 조용히(?) 있는 국민

들까지 오히려 '나도 한번 한탕 해보자'는 투기 심리를 불러 일으키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이 뛰어들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나도 부동산을 투기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하게되고요.

어찌됐든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관련 기사가 증폭되고 또 증폭되는 악순환 현상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00조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자금 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언론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들이 많아 이들이 제공하는 시세와 호가표를 인용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 과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쉬워진 편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호가가 옳고 그른지 여부를 언론사 자체적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표와 대학입학 사정표 | 그래서 저는 이런 아파트 시세표와 수능 성적 대비 대학입학 사정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부동산 악순환 - 언론의 책임 | 이렇게 제가 몸담고 있는 곳,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언론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파트 시세표 보도는 하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세표가 주요 신문사의 면에 게재된 이후부터는 매일 증권 시세표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관련 기사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집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전 같으면 일일이 부동산 업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통계를 내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작성에 품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 지금처럼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보도의 필요성도 당시로서는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불렀던 현 수능시험이 끝나기 무섭게 각 방송사들은 수능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신문들은 그 다음날 수능 특집면을 만들었습니다. 대개는 몇점을 맞으면 어느 대학 무슨 학교 무슨 과에 갈 수 있다는 성적별 대학표를 만들어 방송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지요.

학원마다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이런 입학 사정표는 집값 시세표나 별 다를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시장에 대한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 입니다만 이 때 보도가 수험생들을 오도할 수도 있는데다 극심한 눈치경쟁은 물론 과열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당시 교육부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보도에 대한 자제를 결의해 결국은 입학 사정표를 언론사들이 대부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형태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언제쯤 지금과 같은 경쟁적인 아파트 시세 보도를 자제하게 될지 생각합니다. **PPFK**